

신뢰를 중요시 여겼던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
박재현 작가

살면서 재능보다 더 필요한 것인 인간관계다. 신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선물 받았다고 해도 생전에 성실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당대 최고의 명성을 누렸던 화가가 라파엘로다. 라파엘로가 생전에 고위층으로부터 추앙을 받았던 것은 예술성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또한 라파엘로가 고위층에게 사랑받았던 것은 상냥한 성격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예술가 특유의 고집을 부르지 않았다.

라파엘로는 당대 최고의 거장으로 평가받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고 특히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라파엘로가 신뢰를 중요시 여기게 된 계기는 고향 우리비노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페루지노에게 도제 수업을 받게 되면서부터다. 페루지노는 그 시대에 취향에 부합되는 그림을 그려 상업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공방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다. 페루지노의 공방 운영방식은 라파엘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파엘로는 화가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대의 유명한 화가들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등지를 옮겨 다니며 공부한다. 라파엘로는 21살 때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피렌체로 이주하면 당시 유명한 가문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서 명성을 쌓아나갔다.

라파엘로가 피렌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로마로 불러 바티칸 성당에 있는 교황이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문서의 방' 을 의뢰한다.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 궁 2층에 자신의 거처 위에 마련한 아파트 공간이다.

라파엘로는 학식이 많다고 말한 율리우스 교황의 지시대로 고대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지식들이 이뤄 낸 성과를 찬사하기 위해 <아테네 학당>을 제작한다. 아테네 학당은 모든 시대의 이념과 역사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곳을 상징한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예술과 지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철학자로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프라타고라스 등은 당시 아테네 시민으로서 아테네의 문화와 지성을 담당했다.

개방형 건물 오른쪽에 창을 들고 미네르바의 조각상과 왼쪽에는 아폴로 조각상이 입구를 장식하고 있다. 수금을 들고 있는 아폴로는 조화와 정신을 강조하는 이성의 신으로 철학과 신학을 상징하며 미네르바는 평화를 상징하는 지혜의 신으로 문학과 법학을 상징한다.

화면 중심에서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다. 붉은색 옷을 입은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티마이오스>를 들고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푸른색 옷을 입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윤리학>을 들고 바닥을 가리키고 있다.

두 철학자가 가리키는 것은 이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천상의 이데아를 중시하는 플라톤은 하늘을, 실존주의 철학을 중요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다.

화면 왼쪽에 소크라테스는 한 무리의 아테네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아래에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수학적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고 그의 어깨 너머로 피타고라스 책을 보고 있는 인물이 스페인의 엠파도클레스다.

정면에 쭈그리고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인물이 철학자 헤라클리투스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다. 계단 정면에 술잔을 들고 대자로 누워 있는 인물이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던 건유학파의 디오게네스다.

화면 오른쪽 아래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는 허리를 숙인 채 콤파스로 석판에 그려진 도형에 각을 측정하며 주변에 모여 있는 청중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유클리드의 옆에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은 그의강의에 흥분하고 있다.

유클리드 뒤편에 있는 청중들 사이로 황금색 옷을 입고 왼손에 지구의를 들고 있는 인물이 그리스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다. 프톨레마이오스는 2세기에 활동했던 천문학자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프톨레마이오스 앞에서 지구의를 들고 흰색의 옷을 입은 인물이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의 예언자이자 배화교의 창시자인 조로아스터이다. 이 두 사람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라파엘로다.

라파엘로는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을 묘사하면서 동시대에 화가들을 모델로 했다.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유클리드는 당시 유명한 건축가였던 브라만테를,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했다.

철학자들 배경의 건축물은 철저히 원근법에 의해 그려졌지만 라파엘로의 상상에 의해 그려졌지만 철저히 원근법에 의해 배치되었다. 라파엘로는 인간적인 것보다 초자연적인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크고 웅장하게 건축물을 표현했다.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을 제작하고 있을 당시 율리우스 2세는 건축가 브라만테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의 개축을 계획중이었다. 1514년 라파엘로는 브라만테의 뒤를 이어 교황청 건축가로 임명되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도리스 양식으로 브라만테의 양식에 대한 경의를 나타낸다.

라파엘로는 대화, 독서, 집필, 명상, 가리치고 있는 인물의 행동을 표현함으로써 위대한 철학자들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는 〈아테네 학당〉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에 이어 르네상스 대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라파엘로는 로마 궁정에서 활동하면서 로마 르네상스 전성기의 ‘장대한 양식’을 창안한다. 그는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어 교황 레오 10세의 후원을 받았다. 라파엘로는 레오 10세의 전폭적인 지지

를 받으며 로마 고전을 보존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파엘로는 로마에서 활동하던 중 마르케리타 루티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로마 산타 도르테아에서 제빵사의 딸로 태어난 마르케르타는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다. 라파엘로는 마르케리타와 로마에서 12년 동안 살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았다.

라파엘로의 잘생긴 외모와 화가로서의 명성은 여자들에게 관심을 끌었다. 또한 라파엘로는 연애 하는 것을 좋아해 마르케리타와 동거 중에서도 여러 명의 여자와 사랑을 즐겼다.

결국 라파엘로는 과도한 애정 행각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쓰러진다. 의사는 라파엘로의 병의 원인을 모르고 열을 식히기 위해 피를 빼는 처지를 한다. 의사의 부주의한 처방으로 라파엘로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게 된다.

라파엘로는 임종을 앞두고 병상을 지키던 마르케르타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는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라파엘로는 많은 여자와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가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은 마르케르타였다. 라파엘로는 임종할 때 교회의 압력으로 정부를 둔 것을 회개했지만 마르케르타를 진정으로 사랑해 그녀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다. 마르케르타는 라파엘로가 죽자 로마의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라파엘로가 마르케르타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라 포르나리나>다. 이 작품의 제목 <라 포르나리나(제빵사의 딸이라는 말)>은 그녀의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다.

붉은 옷은 반쯤 벗겨져 허리춤에 있고 속살이 다 비치는 하늘하늘한 속옷을 여인은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속옷을 잡고 있는 손으로 인해 가슴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녀의 뺨은 가슴을 드러내는 일이 수줍은 듯 붉어져 있다. 왼손이 다리 사이에 놓여 있는데 그것은 비너스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정숙한 여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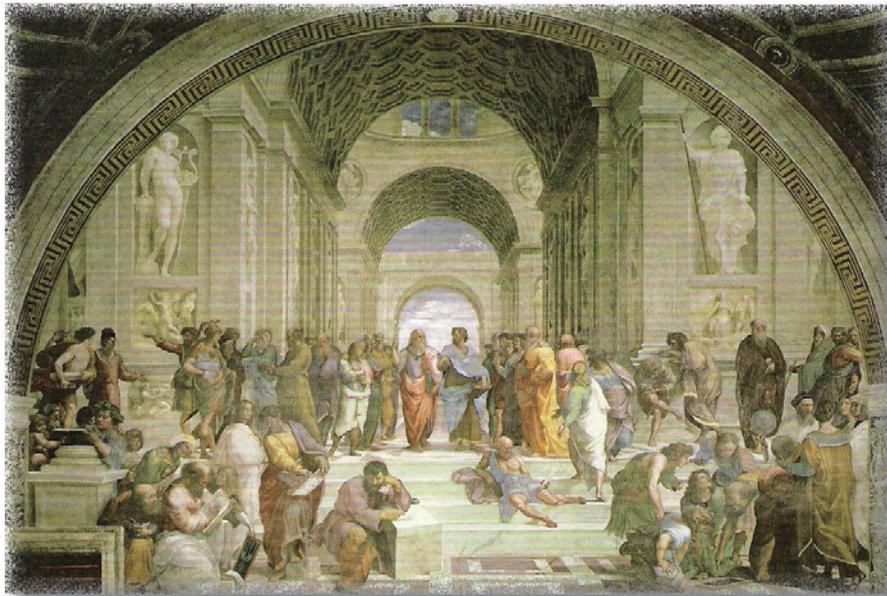
마르케르타는 왼쪽 팔에 팔찌와 손에는 반지를 끼고 있다. 그녀의 팔찌에는 라파엘로의 이름에 새겨져 있다. 이름이 새겨진 팔찌는 그녀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라파엘로의 여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라파엘로는 그녀를 모델로 성모자상을 비롯해 여러 작품을 제작했지만 이 작품은 낭만주의 시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거장과 제빵사의 딸과의 사랑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산치오 라파엘로(1483~1520)는 짧은 생애동안 예술을 통해 인간정신을 찬미하고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



〈아테네 학당〉-1509~1511년, 프레스코 벽화, 772, 로마 바티칸 성당 소장



〈라 포르나리나〉-1520년, 캔버스에 유채, 87*63, 로마 바르베르니 궁 소장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재정과 지방세”는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지방재정·세제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세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논문

지방재정·세제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의견

■ 우수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재정·세제활동이나 우수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수필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재정·세제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조합기금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6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 02)3274-2027
Fax : 02)3274-2009
E-mail : myposse@klfa.or.kr

“지방재정과 지방세”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지방세

2011년 10월호
(통권 제 46호)

발행인 이상복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편집인 정재근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편집위원 곽채기 | 동국대학교 교수
김대영 | 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완규 | 중앙대학교 교수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안경봉 | 국민대학교 교수
유경문 | 서경대학교 교수
유태현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영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만수 | 한양대학교 교수
최진혁 | 충남대학교 교수
(이상 가나다순)
최재경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임이사
변성안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이우종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김영철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장
안병윤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심영택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장
조규일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발행일 2011년 10월 일
디자인·인쇄 사회문화사 (02-2263-0523)